

총학 선거 돌입

서울, 19·20일

수원, 12~14일 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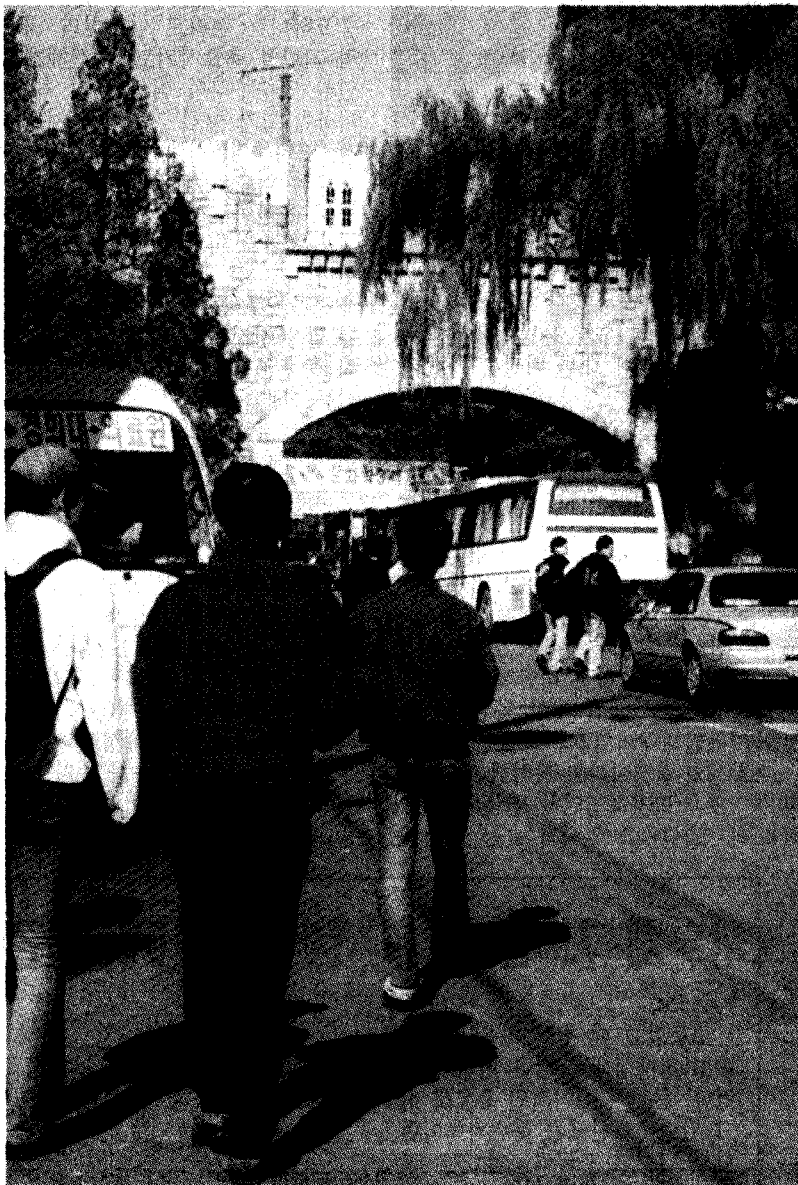
양캠퍼스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선거철에 돌입한다.

서울캠퍼스는 오늘부터 오는 6일 오후 6시까지 총학생회장 임 후보자 추천을 받고 추천이 마감되는 6일 오후 6시 등록심사를 거쳐 통과할 경우 등록되지 등록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rule meeting시간을 갖는다. 후보자로 등록될 경우 7일 오전 8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총투표는 19, 20일 각 단체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또한 수원캠퍼스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총학생회 투표를 실시한다.

한편 단과대별 선거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로, 서울캠퍼스는 10개 단과대학 중 문리대를 포함한 3개 단과대학이, 수원캠퍼스는 6개 단과대학 전체가 임 후보 신청을 마친 상태이다. 단과대학별 임 후보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문리대=정:신용호(사학 95) 부:조영욱(수학 95) △정경대=정:여준호(신방 96) 부:황수정(경제 96) △사법대=정:조세나(영교 96) △외대=정:김기욱(중문 96) 부:장성희(영문 97), 정:임준민(불문 96) △사과대=정:임재현(경영 95) 부:박찬석(사회 93), 정:이순혁(행정 96) 부:신지현(사회 96) △자연대=정:조형근(환경 93) 부:최광관(유전 92), 정:한동희(물리 92) 부:김현곤(자연 97) △공대=정:박주원(전자 92) 부:차정호(기계 93), 정:조한철(전자 94) 부:김영국(산공 91) △산업대=정:허완희(입학 96) 부:유성호(생명 97), 정:이진구(산디 92) 부:이철민(조경 92) △체과대=정:권순재(체육 92) <취재부>



교문앞 통행 위기, 대책마련 시급

영업차량 순환로 및 의료원 출로 변경 필요

오전 9시 5분전, 교문앞은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헬레빌 학교로 뛰어 들어가는 학생들, 마을버스에서 내려 경희의료원으로 들어가는 택시 사이로 달리는 학생들, 어느 학교나 그렇겠지만 이 시간대는 하루 중 교문앞이 가장 분주하다. 더군다나 서울캠퍼스의 교문은 경희의료원의 출입구와 맞닿아 있어 그 분주함이 타학교의 배에 달한다.

시일을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학내 차량의 주차문제를 정착시키고자 서울캠퍼스는 지난 95년부터 주차유료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10월부터는 인근복지위원회 주최 불발 주차 단속이 시행되고 있어 이제 학내 교통 및 주차문제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밖으로 돌려보면 학교 주변의 교통문제가 결코 만족의 단계가 아님을 알게 된다. 교문앞 교통 혼잡, 서울캠퍼스에 재학중인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인상을 찡찡했을만한 이 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학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교문, 주변환경을 저해한다는 등의 문제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경희의료원으로 들어가는 영업용 차량과 마을버스의 운행로가 학생들의 진입로와 엇갈려 있어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생각할 때 대책마련이 얼마나 시급한지 알 수가 있다.

"학교가 갖고 있는 입지적 조건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실효 대책이 라고 내세울 만한 계획이 없어요"라

는 ...건설과정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도로변이 아닌 도로끝에 자리한 서울캠퍼스의 입지적 조건 덕에 완벽한 대책 마련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그나마 현재 우리학교의 입지적 조건 등을 고려해 취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우선 의료원 앞 영업용 차량 순환로 변경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 약 10m 길이도 되지 않는 순환로를 의료원 주차장 안쪽으로 약 30 m가량만 확장한다고 할 때 순환로 중간 지점에 설치된 승차장에서 대기하는 영업용 택시를 순환로 내에 수용할 수가 있게 되어 학교 앞 진입로의 혼잡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가지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은 경희의료원을 드나드는 내빈용 차량의 출로를 홍릉과 통하는 주택가 도로로 설정하고 홍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의료원 측의 홍보가 선행 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학교측의 협조 요청이 우선되어야 한다.

오는 1999년이면 완공될 종합강의동의 부설 주차장이 대운동장으로 결정됨에 따라 주차장으로 진입할 차량들은 교문밖에서 직접 치대알길로 통행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학교에 출입하는 학생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의 요소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제 '아름다운 그러나 안전한'이란 환경을 벗어나 안전한 아름다운을 얻고자 한다면, 학교측은 하루속히 이에 대한 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강남이 기자>

수원캠퍼스 경전철 유치 확정

오는 2004년 성균관대~수원캠퍼스간 동서선 완공

성균관대에서 영통지구내 경희대에 이르는 경전철 동서간노선이 잠정 결정됐다.

경전철 유치사업을 추진중인 수원, 용인시등이 최근 경기도와 철도청에 제출한 '경전철사업추진계획안'에 따르면 99년부터 2004년까지 동백지구(여정), 신갈, 민속촌, 경희대, 성균관대를 연결하는 11.3km의 동서선이 건설된다.

동서선은 민간자본으로 유치하며 기존 국철이나 계획완전단계에 있는 수도권순환전철과 연계시키도록

설계되었으며 고속도로, 국도와 연계되는 도로망과 함께 영통지구내 10만명의 상주인구, 경희대 통학학생들 진출입을 담당할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용인시는 에버랜드, 용인, 민속촌, 신갈을 순환하는 10.5km의 경전철을 오는 2003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다.

갈리 평화복지대학원장 추대 평화복지대학원(원장: 손재식, 교

수)은 부르토스 부르토스 갈리 전 UN 사무총장을 명예원장으로 추대했다.

포르투갈 대사 초청강연

신용철(사학)교수는 오는 5일 오후 3시 30분 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에서 학술강연회를 개최한다.

'포르투갈과 동아시아 관계'라는 주제하에 열리는 이번 강연회에서는 페르난두 포르투갈 대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수원 대중평 6·7일 실시

현황보고, 캠퍼스 답사 등 실사 수행

수원캠퍼스는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실시하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대중평) 현지방문평가를 받는다. <관련 인터뷰 7면>

우리 학교는 자체평가연구위원회, 기획위원회, 실무위원회 3개부서 23명으로 대중평준비팀을 구성하고 지난 9월20일 대학교육협의회에 평가자료를 제출, 서면평가를 마친 상황이다.

우리학교는 작년 서울캠퍼스와 대학원이 최우수평가를 받은바 있

으며 동아일보, 중앙일보등을 주축으로한 각종 평가에서 전국 10위내외의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현지방문평가 일정은 6일 오전 9시10분부터 10시까지 대학현황보고, 오전10시부터 11시까지 실사단 캠퍼스 답사,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12분야에 대한 영역별 실사를 수행한다.

평가 2일째인 7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역별 실사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영역별 강평회를 끝으로 평가를 마치게 된다.

주한 외국인 한국역사 문화교실

1백 50명 대상, 외국어로 우리 문화 소개

'97 주한 외국인인을 위한 한국의 역사 문화교실'이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국제교육원(국교원, 원장: 안영수 영문학과 교수)의 주최로 운영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촉구, 국제친선을 증진시키고자 기획한 이 행사는 1회 강의를 약 1백 50명의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강의는 영어반과 일어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영어반은 국교원 2층 영상강의실에서, 일어반은 한의대 2층 운암실에서 실시된다.

이번 행사에 대해 김중섭(국문)교수는 "우리나라와 우리학교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거나 외국어로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외국인이 아니어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 또한 이번 행사의 마지막 날인 오는 28일에는 이번 행사를 평가하고 한국무용과 태권도 시범, 사물놀이 등의 특별공연을 오후 6시 30분부터 크라운관에서 선보인다.

이번 주 강의일정 및 강사는 다음 표와 같다.

11월 7일	오후5시30분~6시20분	등 록		
	오후6시20분~6시30분	개회식		
	오후6시30분~8시	영어반	유영익 연세대교수	한국의 역사
		일어반	박성수 정문연교수	

동연 총투표, 66.5% 한총련 탈퇴 '찬성'

14대 동연 한총련 탈퇴 결정

지난 30일과 31일 양일간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동연)가 동아리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총련 탈퇴 찬성투표 결과는 '찬성'에 찬성투표가 66.5%가 한총련 탈퇴에 찬성함에 따라 동연은 한총련을 탈퇴할 것을 발표했다.

이번 투표는 55개 동아리 75명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려 했으나 5개 동아리가 투표를 포기하고, 1개 동아리 1명이 투표를 거부해 총 투표 대상인원은 총 2백 49명이었다. 이중 투표에 참가한 인원은 대상 인원의 63.6%인 1백 59명으로 그

중 1백 5명이 찬성하고 50명이 반대에 뜻을 밝혔다.

이번 총투표를 기획한 김봉석(경제3)동연장은 "이와 같은 단위 투표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당초 전학대회나 학운위를 통해 실시를 제안했으나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다"며 "한총련 탈퇴, 불탈퇴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학생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 기존의 한총련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이번 투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 12일 전화번호 변경

280은 201, 281은 204로

수원캠퍼스 교내전화번호 및 직통 전화번호(팩스 포함)가 기존의 신갈전화국에서 신설된 영통전화국으로 이전되어 오는 12일 변경된다.

외부에서 학교로 전화할때 교내 전화의 경우 280에서 201로 국번만 변경, 직통전화는 281에서 204로 국번, 고유번호 일부가 변경, 팩스는 국번, 고유번호 모두 변경된다.

한편 학교내에서의 통화는 기존 번호와 동일하다.

한집안 두살림

교시탐

'더 록'이라는 영화가 작년 초 극장가에 돌풍을 몰고 왔다. 주인공 두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굳게 믿고 일한 각기 다른 입장에서 최고의 선을 추구해 주인공의 갈등모사가 관객의 눈을 끌어들였다. 이러한 영화같은 이야기가 폭시 학내에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난 10월 30, 31일 양일간 동아리연합회의 한총련 탈퇴투표에 관한 투표가 진행되었다. 이번 투표는 총 55개 동아리중 50개 동아리가 참여했고 한개의 동아리에서 5명씩의 투표인단을 정해 2백49명(1명은 선거인단 포기)가운데 63.6%인 1백59명이 투표에 참석했다. 그 결과 66.5%인 1백5명이 찬성을 30.5%가 반대 그리고 3%인 4명이 무효투표를 행사해 14대 동연이 한총련 탈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동연의 한총련 탈퇴선언을 바라보는 총학생회측의 입장은 씁쓸하기만 하다.

서울캠퍼스 박정운 총학생회장은 "직접 민주주의의 표시라 할 수 있는 투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총련 탈퇴투표를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총학과 동연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학생들이 전국적인 학생회 연합조직을 부정하고 있지 않지만 '한총련을 탈퇴해야 한다'는 등의 혼재된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며 "동연에서는 탈퇴를 한 후에 무언가를 얻는게 아니라 단지 학생운동의 현재가 비판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동아리연합회 김봉석(경제3) 회장은 "총학에서 총투표는 무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안전으로 채택되지도 못했다.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하에 총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물론 양측 모두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희의 한구성원이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시기에 단결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최현일 기자>

경희 Space



열창

지난 30일 서울캠퍼스 노천극장에서 개최된 '97 가을 하늘 연달 노래마당'.

24일 치뤄진 예선을 통과한 19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본선에서는 국문학과 2학년 김현태, 한광우, 이훈철 군이 '강릉으로 가는 차표'를 불러 1등을 차지했다.

2등은 '새로운 모습으로'라는 창작곡을 선보인 연극동아리 '동트는 새벽'이, 3등은 작곡과 학생들이 차지하였고 1,2,3등에 각각 30만원, 20만원, 1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었다.

지면안내

2 강연초록

박정희 신드롬 학술토론회

3 특 집

피지 의료봉사 동행취재기

5 사 회

권영길 후보 초청 포럼

9 경희의 이름으로

우리문학의 수수께끼 저자 주강현 동문

10 사회기회

'97 대선 경희인 설문조사

12 생활문화

대학생 통신문화



경희 그 한주의 역사

1964.11.5 경희 중·고등학교 교사 준공

1967.11.3 신금교 준공

1972.11.8 세계 최초로 무악물 침출 마취수술 성공

1987.11.9 수원캠퍼스에 산업정보대학원 신설

1988.11.7 이날 발표한 신일생 모집요강에 산업디자인과가 첫 출현. 신설 당시 모집인원은 80명이었으며 면접에 불참하거나 평점D를 받은 수험생은 전형에서 제외.

교내단신

경기지역 대학 중소기업취업박람회 경기지역 대학 중소기업취업박람회 가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캠퍼스 학생회관 로비에서 열린다.

이번 취업박람회에서는 기업설명회가 2시간동안 진행되며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의 상담 및 면접, 지원서 접수 받는다. 총 45개 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34개 기업이 간접적으로 참가하고, 11개 기업이 직접적으로 참가한다.

대한전기계, 동도전자, 성일요업, 동화엔담 등 11개의 직접 참가업체는 행사 당일 원서 접수와 면접을 동시에 실시하며 간접참가업체에 대한 원서 접수는 중소기업청 재단에서 받는다.

한국어원학회 연구발표 우리나라 유일한 어원연구학회인 한국어원학회(회장:서정범 국문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서울캠퍼스 대회의실에서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또한 한국어원학회는 발표된 논문들을 수집하여 '어원연구', '어원사전' 등을 출간할 계획이다.

오페라 워크샵 갈라콘서트 '제2회 오페라 워크샵 갈라콘서트'가 오는 5일부터 3일간 크라운관에서 개최된다.

이훈(성악)교수의 지도 아래 음대 3,4학년 학생들이 '라 보엠', '사랑의 묘약', '피가로의 결혼' 등의 오페라를 연주하게 될 이번 공연은 각각 오후 7시부터 시작된다.

43차 아·태 정기포럼 아태지역 연구소(소장:김달현 교수)는 지난 22일 '제43차 아·태 정기 포럼'을 개최했다.

신한국당 ...의원을 초청,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도래와 21세기 한국 정치지도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22일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 고

제46기 수습기자 모집

우리학교 총장님과 나란히 앉아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셨습니까? 거리집회에 나가 전경들 사이에 서서 구호를 외치는 학생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이름이 나온 글이 신문에 나와 2만5천부가 인쇄되는 광경을 보셨습니까? 내가 쓴 글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곳, 바로 대학주보입니다.

1. 모집대상: 우리학교 1학년(97학번)
2. 모집기간: 서울 11월 11일까지, 수원 11월 11일까지
3. 전형방법: 간단한 필기시험과 면접 마감 당일 오후 5시 30분 각 캠퍼스 편집실에서